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749>

JCCT 2024-5-84

제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정체감이 제2언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The Influence of Korean Chinese Students' Sense of Cultural Identity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Gong Ruoning*, 조미영**

Gong Ruoning*, Cho, Mi Young**

요약 본 연구는 제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정체감, 학습 동기, 학습전략 및 제2 언어 습득의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이 네 가지 변인의 구조 관계를 밝히고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유학생의 문화정체감과 학습 동기, 학습전략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조사는 2023년 5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 서울, 경기도, 부산, 충청도 소재 6개 대학의 중국유학생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는, 문화정체감은 학습 동기, 학습전략 및 제2언어 습득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둘째, 학습 동기는 학습전략, 제2언어 습득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셋째, 학습전략은 제2언어 습득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넷째, 문화정체감과 학습전략 간의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은 정적(+) 매개 역할과 다중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어 학습 과정에서 유학생의 문화정체감과 학습 동기, 학습전략을 촉진하기 위해서 유학생들의 문화정체감 형성의 직접적 체험을 기회를 늘리고 실제 중심의 다각적인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수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문화정체감, 제2언어 습득, 학습 동기, 학습전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s the cultural identity,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strategies,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rends of Chinese students living in Korea to reveal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four variables, thereby revealing the cultural identity,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Korean language learning process. The purpose is to provide basic data to promote . This study verified reliability and validity through a preliminary survey targeting 200 people. This survey was conducted on 1,006 Chinese students studying abroad at six universities in Seoul, Gyeonggi-do, Busan, and Chungcheong-do from May 28 to June 15, 2023.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as that cultural identity had a positive effect on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strategies,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econd, learning motivation had a positive (+) effect on learning strategies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ird, learning strategies had a positive (+) effect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Fourth,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strategy between cultural identity and learning strategy were found to play a positive (+) mediating role and multiple mediating roles.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international students' cultural identity,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in the Korean language learning proces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 directly experience the formation of cultural identity and to organize and teach a multifaceted curriculum centered on practice.

Key words : Cultural identity;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strategy

*정회원 쉬저우공정대학 국제교육과(제1저자)

**정회원 대전대학교 상생교양대학 교양학부(교신저자)

-본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임

접수일: 2024년 3월 4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10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20일

Received: March 4, 2024 / Revised: April 10, 2024

Accepted: April 20, 2024

**Corresponding Author:ejpark@kbtus.ac.k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1. 서 론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화·국제화는 문화, 정치, 교육 등 각 분야로 파급되기 시작했다. 교육측면에서 한국의 대학에서는 국가 간 사람들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한 인재 육성을 위한 유학생 유치 저변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외 유학생 수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한국 교육부가 2022년 12월 공동 발표한 「2022년도 국내 고등 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학생 수가 2022년도에 16만여 명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에 중국유학생은 한국의 최대 유학생 출신국으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1]. 이에 재한 중국유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중국유학생들의 교육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유학생들은 학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의사소통과 학습과정 중에 습득하게 되는 제2언어가 매우 중요하다[2]. 제2언어(Second Language Acquisition/SLA)란 제1언어인 모국어를 습득한 후 학습을 통해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중국 유학생 학습자가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으로 제2언어 습득은 유학생들에게 적응과 학업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제2언어 습득과정은 단순히 언어의 습득이 아니라 인지습관과 사고방식의 습득이며, 개념체계와 사고방식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3].

유학생들은 제2언어를 습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낯선 문화 환경이 가져다주는 스트레스에 경험하고 새로운 생활방식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데 이것이 문화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4]. [5]은 제2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인지하면서 문화정체감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6]은 재한 중국 유학생들에게 제2언어인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은 모국 문화와 외국 문화가 충돌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정체감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제2언어 습득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것으로 유학생들이 문화정체

성을 함양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7]은 문화정체감이 높은 유학생들은 제2언어 습득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8]은 재한 중국 유학생들은 제2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한국문화를 접하고 배우면서 언어학습 효과를 높이는 한편 학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서 학습 동기를 높이게 된다고 하였다.

학습동기란 제2언어를 학습할 때 내재적 욕구를 달성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학습자가 하는 노력하는 것이다[9]. 그리고 학습 장면에서 동기는 학습자의 학교생활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이다[10][11].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화정체감은 학습동기를 통해 제2언어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2언어 습득은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자의 학습행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2]. 즉, 학습자가 제2언어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 충분한 학습 동기를 갖게 되어 학습전략과 장기적인 학습 과정을 지지할 수 있고, 보다 더 좋은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13]. 이처럼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학습전략은 제2언어 습득자가 유학하는 국가의 언어 규칙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언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발전시키며, 학습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다양한 방법과 기술이다[14]. 그리고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이해, 저장, 사용하여 활용되는 구체적 생각이나 행동으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다양한 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의 자신에 대한 자기관리이기도 하다[15][16][17]. 이처럼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은 제2언어 습득에 상호연관성이 있으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18][19].

그러므로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은 제2언어 습득에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정체감은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의 중요한 유발 요인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화정체감과 학습동기, 학습전략 간에 정적인(+) 관계로 나타남을 여러 선행연구에서 엿볼 수 있다[20][21][22].

그러나 문화정체감, 제2언어 학습, 학습동기, 학습전략 간의 4가지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유학생들의 문화정체감이 제2언어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에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은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봄으로써 제2언어 학습 과정에서 유학생의 문화정체감을 올바르게 함양하고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을 촉진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정체감은 학습동기, 학습전략, 제2언어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습동기는 학습전략, 제2언어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학습전략은 제2언어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문화정체감과 제2언어습득 간의 관계에서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유학생들의 문화정체감이 제2언어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에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은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그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모형

제2언어 습득은 유학생에게 매우 중요하며, 유학 기간 동안 직면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이며,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로 제2언어 습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면 그들이 배우고 있는 언어의 문화 및 언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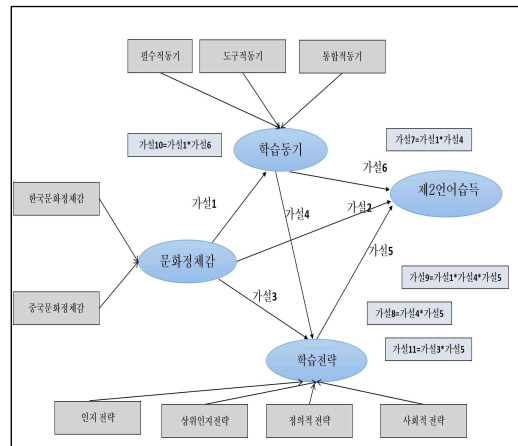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서울 F대학교, 서울 S대학교, 경주 D대학교, 경기 D대학교, 경기 K대학교, 충북 K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총 1,0068명이며,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총 200명이 응답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 조사는 총 1168명이 응답하였다. 부정확한 응답으로 판단되는 설문지 162부를 제외한 1,006개의 유효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선별하여 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체감, 학습 동기, 학습전략, 제2언어 습득을 각각 측정하였다. 각 척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문화정체감의 척도

문화정체감 측정 도구는 대상자의 문화정체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3]가 편찬한 '문화정체성 척도(KAEIS: Korean-American Ethnic Identity Scale)'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22개 문항이 있으며, 중국 문화정체감과 한국 문화정체감 2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Likert) 5점 척도이며, 각 하위 요인별 예비조사의 신뢰도 분석결과, 중국문화정체감 0.871, 한국문화정체감 0.927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신뢰수준을 보였고, 본 조사의 경우에도 중국문화정체감 0.916, 한국문화정체감 0.922로 매우 높은 신뢰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 문화정체감 척도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Table 1. Item composition and reliability of the cultural identity scale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 α	
			예비조사	본조사
중국문화정체감	1, 2, 3, 4, 5, 6, 7, 8, 9, 10, 11	11	.871	.916
한국문화정체감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1	.927	.922

2) 학습동기의 척도

학습동기의 측정 도구는 [24][25]가 수정하여 번안한 ‘학습동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습동기 척도는 총 12문항이며, 필수적 동기, 도구적 동기, 통합적 동기 등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이며, 각 하위 요인별 예비조사의 신뢰도 분석 결과, 필수적 동기 0.890, 도구적 동기 0.906, 통합적 동기 0.797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신뢰수준을 보였고, 본 조사의 신뢰도 역시 필수적 동기 0.891, 도구적 동기 0.899, 통합적 동기 0.889로 높은 신뢰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 학습 동기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Table 2. Item composition and reliability of learning motivation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 α	
			예비조사	본조사
필수적 동기	1, 2, 3, 4	4	.890	.891
도구적 동기	5, 6, 7, 8	4	.906	.899
통합적 동기	9, 10, 11, 12	4	.797	.889

3) 학습전략의 척도

학습전략의 측정 도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전략 분석을 위해 [26]. 그리고 [27]가 제작한 SILL을 번안한 ‘학습전략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습전략 척도는 총 17문항이며, 인지 전략, 상위인지 전략, 정의적 전략, 사회적 전략 등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이며, 각 하위 요인별 예비조사의 신뢰도 분석결과, 인지 전략 0.775, 상위인지 전략 0.820, 정의적 전략 0.627, 사회적 전략 0.844로 기준값 이상의 신뢰수준을 보였고, 본 조사의 신뢰도의 경우에도 인지 전략 0.885, 상위인지 전략 0.872, 정의적 전략 0.788, 사회적 전략 0.916으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신뢰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 학습전략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Table 3. Item composition and reliability of learning strategies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 α	
			예비조사	본조사
인지 전략	1, 2, 3, 4, 5, 6	6	.775	.885
상위인지 전략	7, 8, 9, 10	4	.820	.872
정의적 전략	11, 12	2	.627	.788
사회적 전략	13, 14, 15, 16, 17	5	.844	.916

4) 제2 언어 습득의 척도

제2 언어 습득 측정 도구는 TOPIK의 등급별 평가 기준과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단계의 등급별 총괄표를 참고하여 수정하고 번안한 ‘제2언어 습득 척도’이며 총 12문항이다. 각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이며, 각 하위 요인별 예비조사의 신뢰도 분석 결과, 0.944로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고, 본 조사의 신뢰도 역시 0.948로 매우 높은 신뢰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제2 언어 습득 척도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Table 4. Item composition and reliability of th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cale

구분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 α	
			예비 조사	본조사
제2언어 습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944	.948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는 네 개 변수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정체감, 학습 동기, 학습전략, 제2 언어 습득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및 Smart PLS 4.0, AMOS 26.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Smart PL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 도구들의 내적일관성 신뢰성 분석, 집중 타당성, 판별 타당성 검증 등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응답한 사람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하였다. 연구모형 검증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과 집중 및 판별 타당성 검정을 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에서 매개효과 검정을 위해 팬텀변인을 활용한 간접효과를 추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응답한 사람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39.8%(321명), 여성 60.2%(485명)의 분포로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1학년 20.5%(165명), 2학년 18.0%(145명), 3학년 29.2%(235명), 4학년

32.4%(261명)의 수치를 보였고, 응답자의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39.8%(485명), 지방 39.8%(321명)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변인	범주	빈도(n)	백분율 (%)	누적 백분율(%)
성별	남성	321	39.8	39.8
	여성	485	60.2	100.0
학년	1학년	165	20.5	20.5
	2학년	145	18.0	38.5
	3학년	235	29.2	67.6
	4학년	261	32.4	100.0
거주지	수도권	485	60.2	60.2
	지방	321	39.8	100.0
전체		806	100.0	

2. 연구모델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델의 적합도 검증 및 가설 검정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이용하였다. 또한 타당성 있는 연구모델 검정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델 분석, 측정모델 타당성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연구모델을 검증하였다.

1) 확인적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체감, 학습 동기, 학습전략, 제2 언어 습득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이용하였다.

구조 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이용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보다 단일차원성 검증에 더욱 바람직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측정모델 분석을 하였다.

각 개념의 통계적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표-6>과 같이 χ^2 , RMR, RMSEA, GFI, AGFI, CFI, TLI, IFI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χ^2 검정은 귀무가설(H_0)“데이터는 모델에 적합하다”, 연구

가설(H₁)“데이터와 모델은 적합하지 않다”이므로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야 (p>0.05)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하지만 카이제곱 검정은 표본의 크기와 측정변수의 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이는 모델을 채택할 충분한 조건이지 필요조건이 아니다. 이에 χ^2 검정의 단점을 극복한 지표로 RMSEA가 널리 사용된다. 원소간근접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의 기준값은 일반적으로 0.08(또는 0.1 이하)의 값이 나타나면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 모델을 채택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GFI, AGFI, CFI, TLI, IFI, NFI는 0.9 이상, 잔차제곱제곱근(Root Square Residual: RMR)은 0.05 이하(또는 0.1 이하)이다[28][29].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문화정체감, 학습 동기, 학습전략, 제2 언어 습득 변수 모두는 최초 모델에서 만족할 만한 적합도가 생성되어 문항 삭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able 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변수	측정 변수	카이제곱통계량		RM R	GFI	AG FI	CFI	TL	IFI	NFI	RM SEA
		$\chi^2(df)$	p								
문화 정체감	22	850.335 (208)	.000	.037	.912	.893	.937	.930	.937	.918	.062
학습 동기	12	189.372 (51)	.000	.026	.963	.943	.978	.977	.978	.970	.058
학습 전략	17	530.325 (113)	.000	.029	.926	.900	.950	.940	.950	.937	.068
제2언어 습득	12	505.175 (54)	.000	.044	.897	.851	.937	.927	.937	.930	.098

2) 측정모델 분석

측정모델은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단일차원성이 확인된 모든 변수를 공분산으로 설정한 모델이다. 측정모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연구모델의 가설 검정을 파악하기 전에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지표들이 단일 요인모델에 의해 수용할 수 있는 적합도를 보이는가를 조사하고, 타당성의 가장 엄격한 평가 방법인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측정모델 분석을 위해, 문화정체감, 학습 동기, 학습전략 변수는 항목합산(item parceling)을 통해 새롭게 생성된 변수를 측정변수로 투입하였고, 제2언어 습득 변수는 문항을 측정변수로 투입하는 모델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측정모델의 타당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델 적합도(model fit)를 검정한 결과, <표 7>와 같은 모델 적합도 값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hi^2=881.18(df=184, p=.000)$ 으로 연구 가설은 기각된다. 하지만 카이제곱 검정은 표본의 수와 측정변수의 수에 민감하므로 다른 적합 지수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RMR은 0.034, RMSEA 0.069, GFI 0.900, AGFI는 0.874로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증분적합지수의 TLI 0.925, NFI 0.919, IFI 0.935, CFI 0.934로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조사하기 위해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값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모든 값들은 일반적 기준(0.7이상)을 상회하는 값을 보여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7. 측정모델 분석 결과
 Table 7. Measurement model analysis results

잠재 변수	측정항목	비표준화 회귀 계수	표준화 회귀 계수	측정 오차	SM C	구성 개념 신뢰도	AV E
문화 정체감	한국문화 정체감	1.000*	.995	.005	.991	.858	.770
	중국문화 정체감	.599	.504	.365	.254		

학습 동기	필수동기	1.000*	.641	.411	.411	.762	.517
	도구동기	1.075	.681	.384	.464		
	통합동기	1.042	.653	.419	.427		
학습 전략	사회전략	1.000*	.713	.356	.508	.841	.577
	정의전략	.563	.471	.409	.222		
	상위전략	.954	.685	.379	.469		
	인지전략	.895	.785	.183	.616		
제 2 언어 습득	언어1	1.000*	.807	.364	.652	.944	.571
	언어2	1.055	.767	.531	.588		
	언어3	.991	.786	.414	.618		
	언어4	1.035	.779	.472	.607		
	언어5	1.098	.776	.544	.602		
	언어6	1.151	.832	.400	.693		
	언어7	1.019	.702	.730	.492		
	언어8	.952	.737	.519	.543		
	언어9	.968	.786	.395	.618		
	언어10	.820	.749	.358	.561		
	언어11	1.020	.819	.349	.670		
	언어12	1.081	.817	.398	.667		
적합도	$\chi^2=881.108$, $df=184$, $p=.000$, $RMR=.034$, $GFI=.900$, $AGFI=.874$, $CFI=.934$, $TLI=.925$, $IFI=.919$, $NFI=.919$, $RMSEA=.069$						
*최초 모수를 1로 고정함 값임							

Table 7. Measurement model analysis res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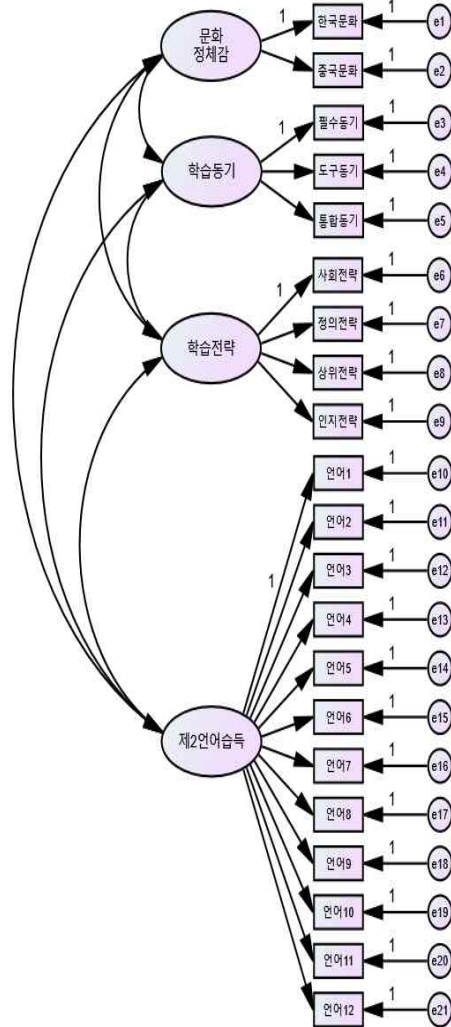


그림 2. 본 연구의 측정모델 분석모형
 Figure 2. Measurement model analysis model of this study

3) 판별 타당성 검정

판별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을 이용하였다. AVE 값을 가지고 판별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변수 간 모든 상관계수의 제곱 값이 AVE 값보다 낮으면 판별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한다(Fornell & Larker, 1981). <표 8>은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이다. 각 변수 간의 제곱 값 중 가장 큰 값은 학습 동기와 학습전략 간 상관

계수 값인 0.707이다. 이의 제곱 값은 0.499로 모든 변수의 AVE값이 이 값보다 커야 한다. 계산 결과 모든 변수들의 AVE값은 0.499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나 판별 타당성 역시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8. 상관관계 분석
 Table 8. Correlation analysis

구분	문화정체감	학습동기	학습전략	제2언어 습득
문화정체감	1.00			
학습동기	.574	1.00		
학습전략	.583	.707	1.00	
제2언어 습득	.503	.647	.636	1.00

4) 가설검정결과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도 검정 결과, $\chi^2=910.012$, $df=186$, $p=0.000$, $RMR=.035$, $RMSEA=.070$, $GFI=.897$, $AGFI=.873$, $TLI=0.923$, $NFI=0.916$, $IFI=0.932$, $CFI=0.932$ 로 전반적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적합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검정 결과 <표 9>, [그림 3]과 같다. 중 6개 경로 가설 모두 채택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정체감은 학습 동기($\beta=.574$, $p=.000$)와 학습전략($\beta=.221$, $p=.000$), 제2언어 습득($\beta=.131$, $p=.000$)에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 <가설 2>,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문화정체감을 높여주면 학습 동기, 학습전략, 제2 언어 습득 모두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습 동기는 학습전략($\beta=.631$, $p=.000$)과 제2 언어 습득($\beta=.348$, $p=.000$)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가설 4>와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학습 동기를 높여주면 학습전략과 제2언어 습득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학습전략은 제2 언어 습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어 ($\beta=.296$, $p=.000$), <가설 6>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학습 전략을 높여주면 제2언어 습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외생잠재변수에 의한 내생잠재변수의 설명력을 파악한 결과, 학습 동기($SMC=.330$)는 문화정체감에 의해 33.0%를 설명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전략($SMC=.606$)은 문화정체감과 학습 동기에 의해 60.6%의 설명을 듣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제2언어 습득($SMC=.479$)은 문화정체감, 학습 동기, 학습 전략 변수에 의해 47.9%의 설명을 듣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9. 가설 검정 결과
 Table 9. Hypothesis test results

경로	비표준화 회귀 계수	표준화 회귀 계수	S.E.	C.R.	p
H 문화정체감 → 학습 동기	.760	.574	.038	19.903	.000* *
H 문화정체감 → 학습 전략	.261	.221	.032	8.185	.000* *
H 문화정체감 → 제2 언어 습득	.224	.131	.055	4.045	.000* *
H 학습 동기 → 학습 전략	.563	.631	.024	23.347	.000* *
H 학습 동기 → 제2 언어 습득	.450	.348	.052	8.640	.000* *
H 학습 전략 → 제2 언어 습득	.429	.296	.059	7.309	.000* *
학습동기 SMC=.330 학습전략 SMC=.606 제2언어습득 SMC=.479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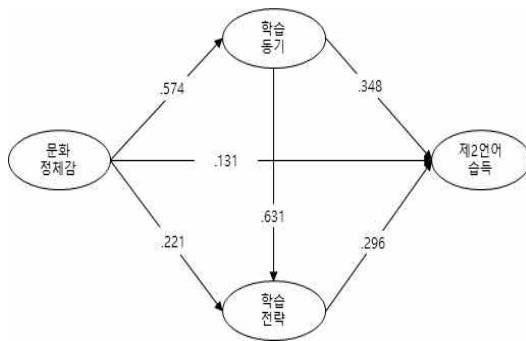


그림 3. 본 연구의 제안모델(표준화된 회귀계수 값)
 Figure 3. Proposed model of this study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values)

5) 간접효과 검증 결과

<표 10>는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연구모델의 잠재 변수 간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를 기반으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문화정체감과 제2언어 습득 간의 관계에서 학습 동기와 학습전략 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레핑 방법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부트스트레핑 방법은 모집단의 분포에 대하여 모수적 가정을 하지 않고, 표본 자료의 추론으로 모수를 추론하는 방식이다(우종필, 2012). 부트스트레핑의 간접효과 계수 추정치는 95% 신뢰구간에서 산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매개효과는 단일 매개효과와 다중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이를 위해 가상의 변수인 팬텀(phantom) 변수를 설정하고, 부트스트레핑 방식을 통해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팬텀 변수는 일종의 가상 변수로 모형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를 의미한다 [28][29]. 이 방법은 구조모형에 개별 매개 경로에 대한 팬텀 변수를 생성하고, 각 경로의 간접효과를 하나의 단일계수로 취급하여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하여 구조모형의 모든 경로를 제한 한 후, 간접효과 추정에 필요한 경로를 하나의 단일계수로 표현된 팬텀 변인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표시한다.

이러한 모형을 구축한 후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와 같이 나타났다.

첫째, 문화정체감은 학습 동기를 매개하여 제2언어 습득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341$, $p=.001$), <가설 7>은 채택되었다. 또한 문화정체감 변수는 제2언어 습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문화정체감을 높여주면 제2언어 습득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학습 동기 역시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제2언어 습득에 긍정적인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문화정체감은 학습 전략을 매개하여 제2언어 습득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beta=.112$, $p=.003$), <가설 8>은 채택되었다. 또한 문화정체감 변수는 제2언어 습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문화정체감을 높여주면 제2언어 습득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학습 전략도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제2언어 습득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문화정체감은 학습 동기를 매개하여 학습 전략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beta=.427$, $p=.002$), <가설 9>는 채택되었다. 또한 문화정체감 변수는 학습 전략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문화정체감을 높여주면 학습 전략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학습 동기도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학습 전략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학습 동기는 학습전략을 매개하여 제2언어 습득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어($\beta=.184$, $p=.002$), <가설 10>은 채택되었다. 또한 학습 동기는 제2언어 습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 학습 동기를 높여주면 제2언어 습득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학습전략도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제2 언어 습득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문화정체감은 학습 동기와 학습전략을 이중 매개하여 제2 언어 습득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간접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beta = .637, p = .003$),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또한 문화정체감 변수는 제2 언어 습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 문화정체감을 높여주면 직접 제2 언어 습득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문화정체감은 학습 동기와 학습전략 역시 높여주고, 이에 따라 제2 언어 습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팬텀변수로 검증한 매개효과의 Bootstrapping 결과
 Table 10. Bootstrapping results of mediation effects verified with phantom variables

경로	간접 효과	95%신뢰구간		p
		하한계	상한계	
(H7) 문화정체감 → 학습동기 → 제2 언어 습득	.341	.262	.434	.001**
(H8) 문화정체감 → 학습전략 → 제2 언어 습득	.112	.072	.155	.003**
(H9) 문화정체감 → 학습동기 → 학습전략	.427	.363	.497	.002**
(H10) 학습동기 → 학습전략 → 제2 언어 습득	.184	.128	.240	.002**
(H11) 문화정체감 → 학습동기 → 학습전략 → 제2 언어 습득	.637	.540	.721	.003**

* $p < .05$, ** $p < .01$

6)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총 11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한 결과, <표-11>과 같이 11개 가설 모두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정체감은 학습 동

기, 학습 전략, 제2 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 학습 동기는 학습 전략과 제2 언어 습득에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 전략은 제2 언어 습득에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모형에서 간접효과를 추정한 결과, 문화정체감은 학습 동기를 매개하여 제2 언어 습득에 유의한 간접영향, 문화정체감은 학습 전략은 제2 언어 습득에 유의미한 간접영향, 문화정체감은 학습 동기를 매개하여 학습 전략에 의미 있는 간접영향, 학습 동기는 학습 전략을 매개하여 제2 언어 습득에 미치는 간접영향, 문화정체감은 학습 동기와 학습 전략을 이중매개하여 제2 언어 습득에 미치는 간접영향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1. 가설 검증 결과 요약
 Table 11. Summary of hypothesis test results

구분	가설	검정결과
가설 1	문화정체감은 학습 동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문화정체감은 학습전략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문화정체감은 제2 언어습득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4	학습 동기는 학습전략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5	학습 동기는 제2 언어습득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6	학습전략은 제2 언어습득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7	문화정체감과 제2 언어습득 간에 학습 동기는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가설 8	문화정체감과 제2 언어습득 간에 학습전략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가설 9	문화정체감과 학습전략 간에 학습 동기는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가설 10	학습 동기와 제2 언어습득 간에 학습전략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가설 11	문화정체감과 제2 언어 습득 간에 학습 동기와 학습 전략은 이중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유학생들의 문화정체감이 제2언어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에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은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그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제2언어 학습 과정에서 유학생의 문화정체감을 올바르게 함양하고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을 촉진하는 데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정체감은 학습동기, 학습전략, 제2언어 습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정체감의 형성은 제2언어 습득과정을 돕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문화정체감은 다른 문화의 우수한 부분을 흡수하는 융합적 사고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융합적인 문화정체감 형성은 유학생들에게 유학을 하고 있는 나라의 문화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정체감을 형성은 유학하고 있는 나라의 언어를 받아들일 때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와 포괄적이면서 융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2언어 습득을 원활하게 돕는 원동력이 된다. 문화정체감은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의 연구는 문화정체감은 제2언어 습득자의 학습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어서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문화정체감의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적극적인 학습동기를 끌어내고 체계적인 학습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자원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 속에 더 높은 자기 정체감과 자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 배경과 관련된 지식과 기능 등

을 포괄적으로 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문화정체감이 높은 학습자들은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교류하는 사회관계망속에서 인간관계에서 복합적이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원동력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31]. 그러므로 문화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제2언어의 습득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다양한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학생들이 모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융합하여 올바른 문화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국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학습동기는 학습전략, 제2언어습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의 학습동기가 강할수록 그들의 학습전략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며, 학습수준도 높게 향상되고 제2언어습득을 활성화시킨다. 반면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약하면 사용하는 학습전략도 적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고 새로운 전략을 능동적으로 사용하려는 적극성도 떨어지게 되며, 제2언어 습득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32][33][34].

셋째, 학습전략은 제2언어 습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언어 습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학습과정에서 타인과 상호교류를 하도록 돕는 사회전략과 정의적이고 상위전략을 계획할 수 있으며, 개인의 학습활동과의 관계가 더 직접적이고 여러 학습 자료를 직접 사용하여 전환시키는 인지전략을 사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2언어 습득을 도울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전략의 계획수립에서부터 제2언어 학습자의 개인차를 탐색하고 각 개별화된 학습전략을 세울 수 있는 학습전략 컨설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정체감과 제2언어 습득 간의 관계에서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문화정체감이 직접적으로 제2언어 습득에 $\beta=.131$ 의 정적 영향을 주었고, 학습 동기와 학습전략이 $\beta=.637$ 의 정적인(+) 매개를 하여 총 효과는 $\beta=.768$ 로 커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0.01$). 학습동기와 학습 전략 두 가지 매개변수가 도입된 후 문화정체감이 제2언어습득에 미치는 전반적인 예측 효과가 크

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문화정체감과 제2언어 습득 관계에서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은 정적인 매개역할을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유학생의 융합적 문화정체감과 제2언어 습득 간의 상호보완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 두가지의 변인을 고려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의 실천적 측면에서 문화정체감을 형성을 위한 학습자의 문화체험활동을 늘리고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체험과 워크숍 위주의 교수법이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문화정체감의 형성과정에서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갈등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멘토와 1대1 팀을 이루어 정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심리적 지원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을 한국의 4개 지역, 6개 대학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나 보다 폭 넓은 연구 대상을 표집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주로 재한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현재 어학연수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비교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 교육부는 2022년도 국내 고등 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대학생뿐만 아니라 어학연수생과 대학원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학연수생과 대학원생의 중심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로 이루어졌으나 후속 연구에서 인터뷰 기법을 사용하여 심도 있는 질적인 연구를 추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KEDI (2002). Statistics report on foreign students at domestic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2022. Ministry of Education.
- [2] Y. Y, Du (2018).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urriculum of second language learning for international students. Comparative study of cultural innovation. 2(20), 70-71.
- [3] Robinson & Ellis. (2008).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hiyi Lu, Trans.). Beijing: World Publishing Corporation.
- [4] S, H (2017). Non-British language study abroad, university life, foreign language study. Nanjing School of Education, 32(06), 56-58+124.
- [5] Z. X, hua (2016). Investigation and analy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cultural identity and Chinese emotional learning strategies of Donggan students from Central Asia. Master's thesis of Xinjiang Normal University.
- [6] X. h, Woo. (2014). Research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inese cultural identity of second language learners in China and their Chinese learning. Master's thesis of Jinan University.
- [7] Y. K, Woo, E, H, Kim (2016). The impact of bilingual competence on resilience and cultural identity of multicultural children.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 9,3, 63-81. DOI: 10.14328/MES.2016.9.30.63
- [8] W. H, Wang (2022). An investigation into the British and American cultural identity of English major college students and its impact on English learning motivation. Master's Thesis on Graduate School of Xi'an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 [9] Gardner, R. C & Lambert, W. (1972).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4(1), 59-109.
- [10] C. J. Kim and S. C, Jang(2003). Educational Psychology. Dongmunsa Temple.
- [11] A. Nam, Jang (2015). A study on second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anxiety, and self-analysis of Chinese Korean learners.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 [12] S. F, Zhang, W. J, Cao (2015). A review of research on 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in the field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China in the past decade. Foreign Language Education. 161-166.
- [13] Seman, G., & Kasumi, Y.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 Competence and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An Empirical Study in Critical Language Classrooms [J]. Foreign Language Annals. (48), 511-520.
- [14] H. M, Lin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grammar learning strategies, grammar ability and writing ab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on Graduate School of Fujian Normal University.

- [15] S. H, Kang (2011). An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on Korean teachers and learner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Bilingual Research*, 47, 687–712.
- [16] L, Yu (2016). On strategies to improve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scores. *China Off-Campus Education*, (25), 83+95.
- [17] M. M, Yang (2023).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the learning strategies of Chinese learners under the background of online teaching. Master's thesis, Harbin Normal University.
- [18] Ellis, R. (1985).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19] X. G, Zhao (2011). Research on the correlation between English achievement motiv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of high school students based on ESE. *Journal of Jilin Institute of Education*. 27(06), 9–11.
- [20] X. H, Zhai (2016). Investigation and analy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cultural identity and Chinese emotional learning strategies of Donggan students from Central Asia. Master's Thesis on Graduate School of Xinjiang Normal University.
- [21] T, Zhao (2023). Bibliometric analysis of research on motivation for learning Chinese as a second language from 2000 to 2022. Master's Thesis on Graduate School of Liaoning University.
- [22] J. X, Cheng (202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hinese Students' Identity Construction and Cultural Identity on Chinese Learning from the Perspective of Community of Human Destiny. *Educational Observation*. 9(46), 52–54+58.
- [23] Y. H, Lim (2014). A study on the cultural identity and Korean learning for third culture kids in foreign schools. Master's Thesis o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24] M. J, Won (2010). The effect of Korean learners' motivation among degree pursuing students on self efforts and self evaluation of Korean efficiency. *Bilingual Research*, 43, 277–300.
- [25] Y. S, jeon and E. G. Kim and G. M. Jeon (2019). Influence of Acculturation Stress of International Student on Learning Korean Language. *MICE*. 19(4). 79–101.
DOI: 10.35176/JMTR.19.4.5
- [26] S. H, Shon (2011). (A) study on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of Korean language learners. Doctoral thesis o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27] Oxford, R. (1990). *Languages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NewYork: New bury House. 22–25.
- [28] J. J, Song (2019).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hesis statistics*. Seoul: 21st century book publishing co.
- [29] J. P, Yu (2012).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ul: Hannarae publishing co.
- [30] Domyei, Z. (2019).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2 Learning Experience, the Cinderella of the L2 Motivational Self System[J]. *Studie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9(1), 19–3.
- [31] Y. Chen (2019).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Chinese traditional culture into college English teaching. *Youth*. (11), 59–60.
- [32] Oxford, R. (1990). *Languages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NewYork: New bury House. 22–25.
- [33] J. Y, Won (2019). A study on international students'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English learning strategies. *Foreign studies research*. 50, 107–146.
- [34] Y. J, Oh, H. S, Pak, and S. Y, Jang (2017).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learning styles and learning strategies on English proficiency. *Study of English Literature*. 43,(2,), 299–324.